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4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유법민 투자유치과장(02-2110-5361), 박성우 사무관(5363), 김시덕 주무관(5362)

'1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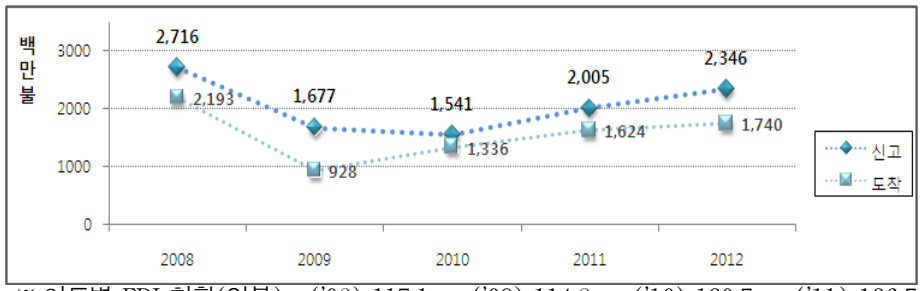
◇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23.5억불 FDI 신고
◇ 1분기 FDI로는 글로벌 금융위기('08년) 이후 최대 기록

1. 전반적인 동향

□ **(실적)** '1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는 **전년동기(2,005백만불)** 대비 **17% 증가**한 **2,346백만불** 기록, 1분기 FDI는 글로벌 금융위기('08) 이후 최대치 기록

○ **도착금액(잠정)**도 전년동기(1,624백만불) 대비 **7.2%증가**한 **1,740백만불**

< 연도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



※ 연도별 FDI 현황(억불) : ('08) 117.1 → ('09) 114.8 → ('10) 130.7 → ('11) 136.7

□ **(특징) ①日·EU 등 선진국 ②그린필드형·증액 ③제조업 투자 증가**

○ **(국가별)** 선진국 투자 증가(52.2%↑), 신흥국은 감소(43.5%↓)

-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EU(34.7%↑)는 증가하고, 미국(8.7%↓)은 소폭 감소, 일본(150.3%↑)은 급증

○ **(유형별)** 그린필드형 투자 증가(34.6%↑), M&A 감소(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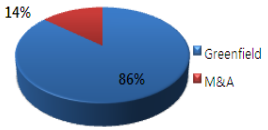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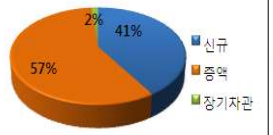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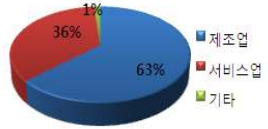
- 신규 공장, 사업장 설립 등 고용창출과 관련한 그린필드형 증가

○ **(형태별)** 증액(41.3%↑) 투자 증가, 신규(5.6%↓) 투자는 소폭 감소

- 국내 旣 진출기업이 재투자하는 증액 투자 크게 증가

○ **(업종별)** 제조업 크게 증가(88%↑), 서비스업은 감소(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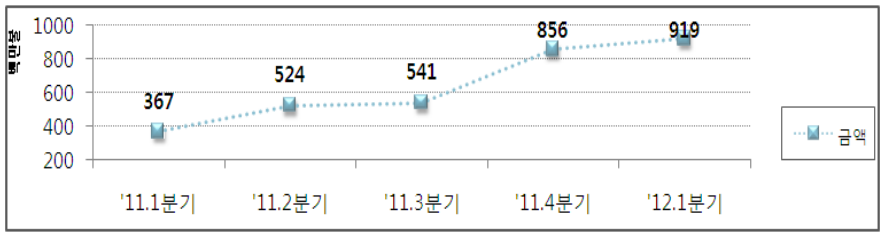
- 석유화학(302%↑), 금속(305%↑), 전기전자 분야 투자 증가

구분	유형별	형태별	업종별
비중			

2. 주요 국가별 동향

1 일본 : 전년동기(367백만불)대비 150% 증가한 919백만불

○ 일본으로부터의 對韓투자는 '11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1분기 실적으로는 최대 기록



○ **(업종별)** 제조업*(494%↑) 및 서비스업(12%↑) 모두 증가

* 화공(841%↑), 전기전자(626%↑), 금속(168%↑) 등

○ **(형태별)** 신규(390%↑), 증액(62%↑) 모두 크게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형(189%↑) 증가, M&A형(30%↓) 감소

< 주요 일본기업의 투자 사례 >

투자자명	對韓투자 사유	신고금액 (천불)
J社	수요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시설 증설	220,000
K社	수요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시설 증설	102,005
C社	섬유수요 확대 대응 위한 대규모 생산거점 설립	100,000
I社	반도체·태양광발전용 특수탄소제품 수요확대 대응	53,572
S社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수요확대 대응	35,088
F社	반도체 제조용 화학 약품 제조공장 설립	20,596

◘ 제조업 및 신규·그린필드형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국내 수요대기업과의 비즈니스관계 확대, ▲美·EU와의 FTA 효과 및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확대 움직임 등에 기인

2 EU : 전년동기(434백만불)대비 34.7% **증가**한 584백만불

○ **(업종별)** 제조업(196%↑)은 대폭 증가, 서비스업(51%↓)은 감소

* 전기전자(2,408%↑), 운송용기계(354%↑), 화공(165%↑) 등

○ **(형태별)** 신규(182%↑), 증액(23.7%↑) 투자 모두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형(22.8%↑), M&A형(56%↑) 투자 모두 증가

○ **주요 외투신고 기업** : A社(네덜란드, 4천만불, 조촉매제조), C社(獨, 1천만불, 반도체 제조), S社(英, 4천만불, 원유정제) 등

◘ 제조업 및 신규 투자가 증가한 것은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국과의 비즈니스관계가 확대되고, 아시아의 진출 거점으로 한국 투자 움직임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3 미국 : 전년동기(467백만불)대비 8.7% 감소한 427백만불

○ **(업종별)** 제조업(14.3%↓)은 감소, 서비스업(2.4%↑)은 소폭 증가

* 비즈니스서비스업(377%↑), 도소매(2,255%↑) 등

○ **(형태별)** 증액(13.6%↑) 투자 증가, 신규(20%↓)투자는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형(1.9%↓), M&A형(71.2%↓) 투자 모두 감소

○ **주요 외투신고 기업** : G社(8천만불, 비금융지주), S社(5천만불, 합금제조), P社(3.4천만불, 펌프 제조) 등

4 중국 등 신흥국

○ **(중국)** 전년동기(65백만불) 대비 47.2% 증가한 96백만불 투자

- 물류·관광 등 서비스업(523%↑) 투자 증가, 제조업(14%↓) 투자 감소

* J社(4.6천만불, 기어 제조), G社(1.1천만불, 물류업), O社(1천만불, 관광호텔업) 등

○ **(중동)** 일반적으로 對韓 투자규모가 매우 미미, 중동 정정불안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55백만불) 대비 96.7% 감소한 2백만불 투자

3. 평가 및 전망

□ **(평가)** 유럽 재정위기, 고유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1분기 국내 FDI가 두 자릿수 증가한 것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 '12년 글로벌 FDI 규모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국내 FDI의 두자릿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양호

* UNCTAD('12.1월) : GDP 성장률과 다국적 기업의 현금 보유고에 근거, 2012년 FDI는 전년(1.51조 달러) 대비 소폭 증가한 1.6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

○ 국내 수요대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 확대, 한-EU FTA효과 등으로 그린필드형 및 제조업 분야 투자가 확대되어 전체적인 실적 개선

○ 다만, 한-美 FTA는 발효된지 얼마 되지않아 동 FTA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름

□ **(향후 전망)** 한-美 FTA 발효 등 기회요인과 유럽재정위기,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위협요인이 상존해 국내 FDI 전망은 불투명

○ **(일본)** 對韓투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엔고 약화, 일본내 산업공동화 우려 등으로 해외투자 확대추세 약화 가능성

○ **(EU)** 유로 재정위기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외투자 동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

○ **(미국)**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

○ **(국내)** 한국신용등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중국경기 둔화 우려, 고유가 등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혼재

* '12.4월, Moody's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등급: A1 유지)

** 모건스탠리 등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 2월말 기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3% 전망, 지난해 9월이래 하락세

➡ 불확실한 글로벌 FDI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노력 필요

4. 향후계획

1 對日투자유치활동 강화

① **(중점기업 타겟팅)** 투자유치 필요성 및 가능성이 높은 중점유치 분야 및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유치 전개

- 旣투자자에 대해서는 현지/국내 IR 우선 초청,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추가·증액투자를 유도하고 투자 프로젝트 구체화

- 잠재투자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방문·면담을 통해 對韓투자 관심 유도

② **(국내외 IR개최)** 일본 현지 IR과 함께 방한초청 등 국내 IR을 동반 개최하여 일본기업의 對韓투자 분위기 고취 및 투자 촉진

- 일본 거점도시에 대한 한국투자설명회 개최(4월/도쿄, 5월/도쿄·나고야)

* 10월에는 지경부장관 주재 대규모 IR 및 주요투자자 간담회 개최

- FIW(외국인투자주간, 6월)와 연계, 일본투자자 100여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산업단지 시찰 및 국내기업 방문·협력방안 논의 (6월)

③ **(유치 시스템 강화)** KOTRA내 對日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강화

- 일본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Japan Desk」를 KOTRA IK 내 설치하여 일본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전담인력 4명)

- 입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의 투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 지정 검토

* 旣 지정된 4개(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FEZ) 전용공단은 '12년말까지 70%이상 입주 전망

2 FTA 등 우호적 투자환경을 활용한 상반기 집중IR 전개

○ 한-美 FTA 발효(3.15)를 계기로 미국·EU 등 전통선진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 세계경제 및 해외투자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브라질(최초 국가IR 개최)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유치활동 강화

< '12년 2분기 해외투자유치활동(IR) 계획 >

시기	국가	주요 유치대상/활동내용	비 고
4월	미국 (뉴욕)	지식서비스, 금융 등	* 한·미 FTA 발효시기와 연계
5월	일본 (도쿄, 나고야)	부품소재	
	중동 (UAE, 쿠웨이트)	투자협력 기반 조성	* UAE 한국상품전과 연계
	중국	부동산, 지역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 한중산업장관회의 연계
6월	EU (독일, 네덜란드)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브라질	신흥국 투자유치 기반 조성	*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 연계

3 주요 외국인투자프로젝트 및 외투기업 밀착지원

○ '12년도 투자 유망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지경부, IK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밀착 지원함으로써 투자 조기 실현

○ 분기별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점검회의' 및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투자 애로 해소

○ 「100대 외투기업 전담 관리제」 실시하여 旣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적극 유도 (외국인투자 홈닥터 증원 : 7 → 14명)

4 FIW(외국인투자주간)를 조기 개최('12.11월→'12.6월)하여 對韓투자붐 조성

○ 美·EU와의 FTA 발효에 따라 높아진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대규모 해외 잠재투자가(300여명) 초청, 對韓투자 유도

5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 수립

○ FTA 허브로서 「투자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수립('12.상반기)

-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안 마련

※ 붙임 : 201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